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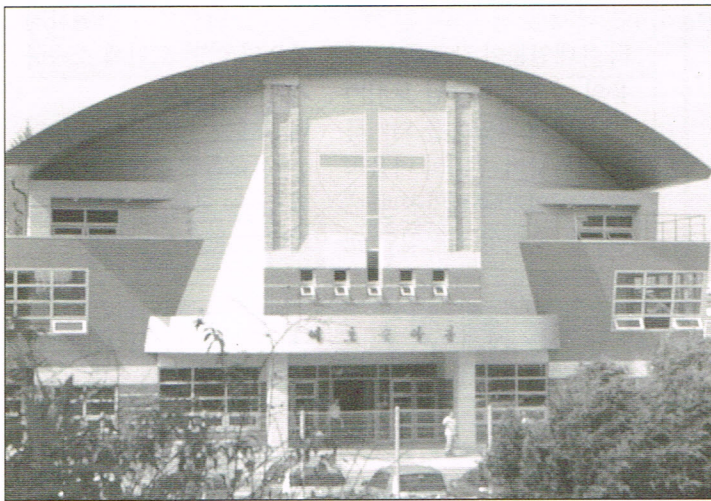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오늘 3부 예배때 길가에교회 파송식 있어

오늘 오후 5시 동화학원 여호수아홀 강당에서 길가에교회 창립예배 드려



오늘 3부 예배때 길가에교회 파송식이 있다. 주님의 교회가 첫번째로 번식하여 파송하는 길가에교회 파송식이다. 길가에교회는 지난 주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스케줄에 따라 순조롭게 모두 완료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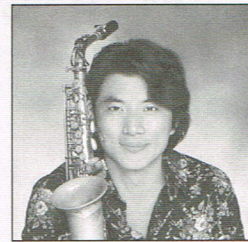
교회 의자 등 비품이 들어왔고, 기증된 피아노 세 대도 제자리에 놓여졌다. 3부 예배때는 길가에교회로 파송되

는 이인호 목사 뿐만 아니라 길가에교회를 섬기기 위해 파송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등단하여 목사와 장로의 안수를 받고 파송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오후 5시 남양주시 동화중고등학교 강당(여호수아홀)에서는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며, 예배 후 학교 식당에 만찬이 준비될 예정이다. 길가에교회 대부분의 집회는 오는 12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주일1부 예배(오전 9시 30분)와 교회학교 모임을 내년 1월 둘째 주(2006년 1월 8일)부터 가지게 된다. 올해는 주일과 겹치는 관계로, 성탄절예배와 신년예배는 온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게 된다. 새가족반을 제외한 각 양육클래스는 새해 2월 중순경에

개강할 예정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길가에교회 홈페이지(gilga-e.org)를 참조하거나 교회전화(031-552-2273~4: 오는 12월 8일 개통)를 이용하면 된다. 오늘 있을 길가에교회 파송식과 창립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파송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4부 예배 "오늘"

이광재 전도사 색소폰 연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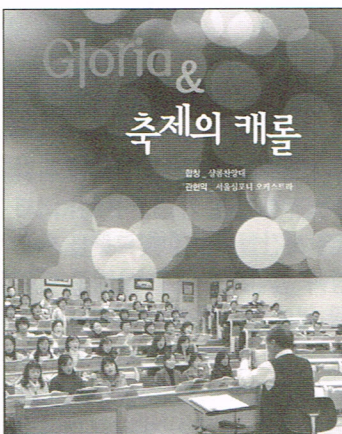
4부예배 "오늘"은 특별히 색소폰 연주로 드러진다. 기독교 음악 CCM에서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로 손꼽히는 이광재 전도사의 연주와 간증을 통해

아름다운 멜로디와 더불어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된다. 지난 번 게스트로 주님의교회에 온 적이 있는 이광재 전도사는 당시 탁월한 연주로 큰 감동과 짧은 시간의 아쉬움을 남겨, 꼭 다시 한 번 듣고 싶다는 "오늘" 참석자들의 열렬한 초대에 응하여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총신 신대원을 나온 이색 경력과 학부에서부터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독보적인 곡해석과 연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6개월간 집에서 칩거하며 기도 중에 응답받은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일화로 본인에게는 큰 간증거리로 알려져 있다.

"Gloria & 축제의 캐롤"

12월 24일 토요일 19:30, 살롬찬양대 주관으로 음악예배로 드려져



올해 성탄절 전야에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음악예배를 드리게 된다. 올해는 3부 살롬찬양대가 주관하고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게 되며, 연주될 작품은 교향곡 'Gloria'와 '축제의 캐롤'이다. 특별한 점은 교향곡 'Gloria' 10개 악장 전 곡을 라틴어로 부르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살롬찬양대는 지난 8월부터 이번 성탄절 전야 음악예배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왔다. 교향곡 Gloria는, 3부 살롬찬양대 지휘자이며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작곡 및 합창전공 교수로 재직중인 이동훈집사가 10개의 악장으로 나누어 칸타타 형식으로 직접 작곡한 작품이다. 이 곡은 1999년에 안산시립합창단에 의해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되었고, 기독교방송 등에서 방송되어 오고 있다. 이번 음악예배 준비과정에서 살롬찬양대원들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부르기도는 Latin어 그대로 합창하기를 원했으며, 그 결과 더욱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했다.

음악예배의 두번째 순서는 Mallote 작곡의 '주기도'를 바리톤 독창으로 드리게 되며, 세번째

순서는 '축제의 캐롤'로서 성탄절 전야의 기쁨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축제의 캐롤'은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송과 일반 캐롤을 모아 성명 미상의 편곡자가 편곡한 원곡을 이동훈 지휘자가 이번 음악예배를 위해 합창과 관현악으로 다시 편곡한 곡이다. 12월 24일(토) pm 7:30에 대예배실에서 열리게 될 이번 음악예배에는 주변의 안 믿는 가족, 친구들도 함께 초청하여 이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기회로 삼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물론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이 함께, 'Gloria'를 통해 주님께 영광드리며, '축제의 캐롤'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같이 기뻐하고 즐기는 뜻깊은 성탄절 전야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오늘 2006 사역박람회 (Ministry Fair) 계속 열려

1층 로비에서 각 사역위원회별 부스 마련해 자원봉사자 계속 모집해



"진정한 꿈의 시작" (the Start of a Real Dream)이라는 제목으로 2006 사역박람회가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1층 로비에서 각 사역위원회별로 부스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된다. 매년 연말마다 행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박람회의 목적은 첫째, 교회 내에서 섬기고 봉사할 구체적인 사역을 원하는 분들과 사역이 필요한 각 부서를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함이며, 둘째, 교회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교회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3면에서 계속)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지난 한주간 은혜 가운데 드러져

'은혜위에 은혜러라!'는 주제로 5일 동안 함께해

지난 한 주간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드러졌다.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죄와 은혜, 공평과 은혜, 진리와 은혜, 치유와 은혜, 구원과 은혜라는 주제로 '은혜'에 대해 깊이 상고하는 한 주간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다. 장소는 대예배실이었고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였다.

올해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주제는 '은혜위에 은혜러라'(요 1:16)였으며, 특히 이번 새벽기도회 기간에는 5일 동안 7개 교구가 돌아가면

서 특송을 담당해 주었다. 이는 교회내 사역과 직책이 중복됨으로 인해 특송을 한 사람이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특송을 담당해준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매일 빵과 우유를 준비해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해준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감사 드린다.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랫동안 느껴지고 고백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매일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주 토요일 올해 마지막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 가져



올해 마지막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가 지난 12월 3일(토) 오후 7시에 개최되었다.

성탄의 분위기로 아름답게 장식한 소년부실에서 장년 새가족 30명과 교우대표가 함께 하여 식탁교제를 나누었다. 이어서 팀장인 신영숙 권사의 사회로 테이블마다 촛불을 밝히고, 새가족

사역팀 남성팀원들의 은은한 실버벨과 1교구 9구역과 14구역이 함께 준비한 축복송과 캐롤, 구역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받은 느낌과 은혜를 소개하는 시간, 구역에서 준비한 선물을 새가족에게

전하였다. 청년 박정환 형제의 클라리넷과 최수현 사모의 피아노 협연이 감미롭게 연주되었다. 이번에 또 한가지 뜻 깊었던 시간은 새가족의 간증시간이다. 이미 등록한 새가족의 간증을 들었던 예전과 달리, 아직 등록을 한 경우는 아니지만 '오늘' 4부 예배에 참여하며 신앙의 싹을 틔어가고 있는 이영우씨 가족을 초대하였다. 이영우씨가 4부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를 진솔하게 이야기하였고, 우연찮게 그날이 본인의 생일이어서, 여러 교우와 새가족의 축복 속에 생일 축하가 겹쳐 이루어졌다. 이어서 문동학 담임목사를 통해 주님의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과 기도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4여선교회 월례회 가져

4여선교회는 11월 30일 2005년 마지막 월례회를 가졌다. 25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일년동안의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2006년을 어떻게 더 보람있게 보낼수 있을지를 계획하며 새회장으로 채은화집사를 선출했다. 요 2:13-22절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담 교역자인 김현령목사가 설교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성전에서 상을 얻으신 것은 그 행동 자체보다 그전부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와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인가에 빼앗길때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

들을 얻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성전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나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며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전지기가 아닌 성전으로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와 월례회 후에는 몇명의 목회자와 회원들이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큰 기쁨이었다. 우리교회는 스스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모임에 소속하기가 쉽지 않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4여선교회에 참석하여 사랑의 많은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한다.

4부예배를 섬길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4부 예배 "오늘"에서 새가족 리더 훈련(TLC 2기)을 모집합니다. 교회와 예배에 낮은 이웃들에 대한 하트가 있는 분들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실 분은 정원형 집사(011-339-6464), 이영미집사(011-9912-4110)에게로 연락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염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4부 예배 유아돌봄부서인 "아이랑 꿈이랑"에서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명식집사(016-9226-7007)에게로 연락 바랍니다.

가정사역팀

2006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MT가져



지난 2일과 3일에 걸쳐 1박 2일로 가정사역팀 9가정은 청주에 등지 하나를 더 가지고 주말 부부로 사는 심동욱 집사의 거처에서 모였다. 오창 톨게이트로부터 15.8Km에 위치한 부영 아파트를 향해 출발한 모든 사람들은 도착할 때까지 심 집사의 네비게이션을 능가하는 치밀한 약도를 따라가느라 웃음꽃이 피었다. 27개구간으로 나뉜 안내약도에는 구간마다 오창톨게이트 이후의 주행거리와 주변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확대된 지도로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을 철저히 배려하는 집사님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이후 저녁식사와 부부 노래경연대회를 가졌다. 저녁 11시 30분부터 시작된 가정사역팀의 2006년 새로운 방향모색 및 토의가 새벽 2시 반을 넘어서자 다음날 아침에 숙개하기로 하고 일차 취침에 들어갔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2006년 가정사역의 방향을 소그룹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풀타임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에서 각 가정의 성숙을 향한 본질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기타 행사중심의 사역은 소그룹사역을 보완하거나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가정 사역에 관심을 갖고 풀타임 및 파트타임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은 가정과 부부에 관한 주제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거운 눈꺼풀을 잠재우며 이튿날에는 발걸음도 가볍게 대통령의 별장으로 이어진 '청남대'를 방문하여 하루 동안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어 호수도

거닐고, 오각정에서 사진도 찍었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 2시간여를 거닐었고, 오후 늦게서야 먹게된 '선녀와 나뭇꾼'에서의 맛난 점심과 차, 분위기는 올해의 지난 수고와 힘들었던 순간들을 일순간에 날리기엔 충분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사역팀원들의 고된 책임감과 적용들, 아버지학교 참여 및 개최, 사역자 컨퍼런스 개최등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모두들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여준 팀원들, 일년 전 처음 만날 때의 그 딱딱하고 어색했던 표정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반갑고 아쉬워서 허강을 하고 또 하곤 한다. 상대의 연약한 점을 인정하며 또한 장점들을 격려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그 부부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오는 18일(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지하 작은 식당에서 가정사역에 뜻이 있는 모든 가정이 함께 모여 꿈을 꾸고 나누는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 한 해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사역팀에 더욱 많은 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님의교회에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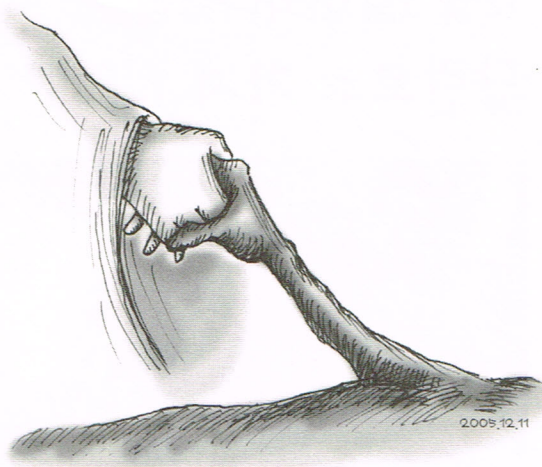
양육 클래스 이번주 종강해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모이는 양육클래스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소선지서 연구)가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

종강했다. 홍민기 목사의 인도로 12주 동안 함께 모여 공부한 이 클래스는 마지막 강의후 따뜻한 교제를 함께 나누며 점심식사를 통해 그 동안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8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공부한 이 클래스는 우리가 평소 가깝게 읽지 않았던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종강을 아쉬워하며 다음 학기에 양육클래스들에 대한 기대를 비추었다. 말라기 4장으로 종강한 마지막 강의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 얽매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관에 대해 깊이 공부했다.

오늘 기도



절망 중에 있을 때 인생에서 막없이 만지시는 주님의 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유아세례식 가져



3주간의 유아세례교육을 마치고 지난 수요일예배 중에 유아세례식이 있었다. 권순유 아이를 비롯한 총 13명의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3주 동안 진행된 유아세례 교육은 자녀들 둔 가정의 부모가 '세례의 의미'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부모'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양육'이라는 주제로 3주간의 교육이 있고 친지들이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부모의 서약식을 거쳐 세례예식이 진행

되었다.

이 모든 예식과 교육 및 행정 이루어지는 이면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역자들과 부모의 신앙과 일정을 돕는 세례예식팀 사역자들의 숨은 봉사의 손길이 있었다. 이 세례 예식팀의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서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힘써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동안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

여 입교식때 기억할 만한 앨범을 만들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쓰고, 자녀가 성장할 가정을 더욱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미고자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세대를 책임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는 귀한 유아세례사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가 20-30년 후에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

구역 모임, 3-7 구역



3-7구역은 전국구인 특성상 주일 2부 예배 후 교회내에서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다. 15명 내

외의 구역원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가운데서 구역모임이 진행되었다. 후반기 교제를 예수전도단 제자 훈련 시리즈 중 제1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좇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년에는 제2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전 구역원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 교제를 통하여 구역원간의 협력과 연합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종강 파티로 크리스마스 날 청계천 걷기 기도를 계획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준비하는 구역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확신한다.

(1면에 이어서)

오늘 2006 사역박람회 (Ministry Fair) 계속 열려

1층 로비에서 각 사역위원회별 부스 마련해 자원봉사자 계속 모집해



이번 사역박람회는 이번까지 열리고 마치게 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역 박람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사역 박람회 브로셔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 가는 곳을 확인하고, 사역 박람회장에 마련된 부스로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관심 있는 곳이면 몇 군데라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에 따른 사역의 구체적인 개시는 각 사역부서장이 전화로 개별적으로 연락하게 된다.

또한 교회 사역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실 분은 자원봉사 연결 데스크로 언제든지 찾아오면 된다.

이번 사역 박람회를 통해 2006년 한 해 동안 사역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최적의 사역지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역 박람회장에서 모자원에 보낼 성탄선물 보내기 신청도 함께 받게 된다.

또한 중랑노인종합복지관과 연결된 불우노인 140명과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성탄선물보내기 신청도 사역 박람회장에 마련된 부스로 찾아가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박람회장에 비치된 사역 박람회 브로셔를 자세히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중등부 1월 첫 주 겨울캠프 계획해

중등부는 200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마음과 또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을 보내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등부가 두 개 부서로 나뉘어진다. 중등1,2학년은 중등1부로, 중등3학년은 중등2부로 나뉘고, 중등1부는 이세진 전도사가, 중등2

부는 이재욱 목사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

12월에 중등부는 새로 진급하는 소년부 6학년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 18일 주일에 소년부를 방문하여 중등부 소개 및 중등부 교사들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서가 바뀌면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는데 이 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중등부에 잘 적응하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다. 또한 1월 첫 주에는 중등부 겨울 캠프를 계획중에 있다. 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충북에 있는 박달재 수련원에서 겨울 캠프를 갖는다. 첫 주에 하는 행사이기에 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첫 주에 함으로 말미암아 교사들과 학생들이 연초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2월 3일 어와나클럽, 달란트쇼 가져



지난 토요일 3일 어와나클럽에서는 달란트쇼를 개최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클럽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음을 배웠으며 그 달란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달란트들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마음껏 선보였다. 지난 두 주간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 각자 또는 반별로 준비한 것들을 차례로 나와 보여주었다. 유럽의 댄스, 어린이 CCM 댄스, 연극, 마술, 태권도 시범과 태권무, 중창을 비롯하여 다양한 무대들을 선보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또한 선생님들이 준비한 인형극과 마술쇼를 통해서 클럽원들과 선생님들 모두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클럽원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달란트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었으며, 내가 아닌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장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어와나클럽은 연말 달란트잔치를 마지막으로 이제 곧 한달 방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어와나클럽을 통해 성경적인 공동체의식과 리더십을 배우고, 수많은 성경구절들을 암송하며, 수십명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와나클럽은 2006년 불티단통합, T&T클럽(초등 고학년) 오픈 등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담당교역자 및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현재 T&T클럽 오픈을 앞두고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내년 1월 학부모 설명회 및 신입교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유명안 담당교역자(011-9040-9809).

청년공동체 사역박람회 오늘까지 열려

청년 공동체는 청년 리더십에 의한 자발적 섬김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을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키우는 의미에서 사역팀 체제를 2005년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다. 한 해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며 많은 사역팀들이 정착되어 섬기고 있음을 감사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팀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이 팀들을 정비하고 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사역팀 박람회를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다. 12개 사역팀이 각기 자신의 사역팀의 사역을 소개할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홍보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1인 1사역의 원칙을 정하고 한사람이 둘도 아닌 한 사역씩만 책임지고 섬기도록 격려하고 있는 청년 팀사역에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장년 성도들의 사역팀 멘토 역할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행정사역팀, 새벽부흥팀, 문서사역팀, 해외선교팀, 국내선교팀, 문화사역팀, 새가족사역팀, 멀티미디어사역팀, 찬양사역팀, 예배지원팀, 중보기도팀, 직장사역팀, 대학사역팀 등의 사역팀으로 재정비하여 새로이 시작하는 팀사역에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란다.

지난 주 목요일 12월 중보기도월례회 가져

12월 8일 목요일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하며 12월 중보기도월례회가 시작되었다. 1년 동안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음을 감사하고 감사기도로 월례회를 시작했다. 설교말씀은 사도행전 1장 3~5절과 2장 41~47절로 정영환 목사가 전했다. 초대교회를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행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일이다.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자들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영환 목사의 설교가 끝나자 사역자들은 한 목소리로 뜨겁게 중보기도했다. 1년 동안 함께 봉사한 사역자들은 서로에게 뜨거운 기도를 주고 받았다.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느끼며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모습이 큰 감동이 되었다. 정영환 목사의 기도로 1부 월례회를 마치고 2부에는 점心和 다과를 나누며 팀별로 모임을 갖고 기도와 교제를 계속했다. 3부에는 중보기도 행정실이 새롭게 단장되어 함께 돌아보며 계속 기도했다.

크리스마스 교회학교 발표회

12월 21일 수요일저녁 7시30분에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준비한 발표회를 갖는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체 1-2부로 준비된 프로그램은 유아부 아이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 그리고 유치부의 노래극, 유년부의 수화찬양, 초등부의 찬양과 함께

신나는 율동과 소년부의 찬양 위주로 이어지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박진감 넘치는 댄스위십이 준비되어 있다. 특별히 찬양가수인 지영의 작은 콘서트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되어 다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끝마칠 예정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참석한 성도 모두에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청년공동체 선교음악회 은혜 가운데 마쳐

청년공동체에서 주최한 몽골 샤르하드 지역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선교음악회가 지난주일 오후 3시 은혜 가운데 마쳤다. 티켓 판매와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구성된 기금은 전액 몽골 샤르하드 지역 도서관 건립을 위해 이강혁 전도사를 통해 전달되었다. 성악, 기악 트리오와

트렛까지, 재즈와 CCM 연주까지 청년공동체의 숨은 실력자들이 모두 자신의 기량을 선교의 씨앗으로 드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이지만 선교지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며 우리의 기도는 겨자씨만한 씨앗이 심겨져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섬길 뿐이다. 앞으

로 매년 이러한 선교 음악회의 전통을 세워 청년들의 자발적 헌신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러 세계 가운데 씨앗을 심어나가는 열방을 향한 섬김이 자리잡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다짐해 본다. 참여하실 수 없는 시간임에도 선교를 위하여 많은 티켓을 구입해주신 성도님들과 시간을 내어 직접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음악회를 위해 준비하고 출연해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18일 4부 예배 "오늘" 크리스마스 축하예배로 꾸며져

예배와 교회에 낯서 이우을

위한 예배 "오늘"에서는 18일 크리스마스 축하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예배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늘

자매의 솔로와 소년부의 이소민 어린이가 초대되어 캐롤과 다채로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것이다.